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62
MAR 12 2021

발간년월 2021년 3월 12일 (통권 제16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로사툼, NSR 연중운항에 핵추진 쇄빙선 3척이면 충분
- 인도, 러시아 극동 지역 석유·가스 프로젝트 투자 준비
- 카자흐스탄, 2025년까지 농업 부문에 99억 달러 투자

주요 통계

- 2020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로사툼, NSR 연중운항에 핵 추진 쇄빙선 3척이면 충분

■ 로사툼, 'NSR을 연중 운항하는데 신규 핵 추진 쇄빙선 3척이면 충분'^{a)}

- 러시아는 북방항로(NSR)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핵 추진 쇄빙선 구축 프로그램을 추진 해왔으며, 리더급 3척을 포함하여 최소 8척의 신규 선박을 2033년까지 건조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최근 코라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사툼 바체슬라프 루크샤 북방항로부장은 NSR을 연중 운항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신규 쇄빙선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음
- 기존에는 쇄빙선 6척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반면, 지금은 3척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임

■ 신규 쇄빙선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LNG 운반선의 강력한 쇄빙 기능 때문^{a)}

- 필요한 신규 쇄빙선 척수가 감소한 이유는 LNG 운반선의 강력한 쇄빙 기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 루크샤 북방항로부장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NSR 시범 운항 결과 야말맥스(Yamalmax) LNG선이 단독으로 주요 빙해지역을 통과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지난 2월 야말맥스선 중 하나인 크리스토프 드 마저리 호가 중국에서 사베타까지 운항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난해 5월 같은 LNG선이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데도 성공하였음
- 루크샤 북방항로부장은 NSR은 통상 5월에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데, 올 봄 추가적인 시범운항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로사툼의 핵 추진 쇄빙선 건조 사업은 노바텍 LNG사업과 밀접하게 관련^{a)}

- 루크샤 북방항로부장은 로사툼의 신규 핵 추진 쇄빙선 건조 계획은 야말반도의 LNG 개발 관련 정부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고 말했음
- 2020년 한해 동안 NSR를 통과한 물동량은 거의 3,300만 톤에 이르렀으며,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최소 8,00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인도, 러시아 극동지역 석유·가스 프로젝트 투자 준비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21/03/rosatom-hints-it-might-not-need-many-new-icebreakers-after-all>(2021.3.11. 검색)

■ 3년 간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인도의 관심 증가하고, 파트너십 강화^{b)}

- 지난 2019년 인도 모디 총리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인도 첸나이 간 정기 해상로 개설을 위한 협약도 서명하였음
-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해상로를 이용할 경우 양국의 해상 운송일이 유럽 항로를 통과할 때(40일) 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24일이 소요됨

■ 최근 들어 인도는 일본과 같이 극동 러시아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b)}

- 최근 인도는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지난 달 인도, 중국, 러시아 대표들은 공동 극동 러시아 사업에 대한 트랙 2 또는 반 공식 협상을 마무리했음
- 인도, 일본, 러시아 3국은 에너지·석탄채굴·다이아몬드 공정·산림·농림산업·교통·의약품을 잠재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음

■ 인도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석유·가스 프로젝트 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시^{a)}

- 3월 1일, 러시아 주재 인도대사,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ANO API), 극동북극개발공사(KRDV)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인도 석유가스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에두아르트 체르킨(Eduard Cherkin) 극동북극개발공사(KRDV) 대표, 발라 발라 벤카테시 바르마(Bala Venkatesh Varma) 러시아 주재 인도 특명전권대사, 타타룬 카푸르(Tarun Kapoor)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 차관,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 비데쉬(ONGC Videsh), 인도 오일(Indian Oil)사, 가일(GAIL)사의 대표들과 극동 3개 지역인 사하(야쿠티야)공화국, 사할린, 아무르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하였음
- 에두아르트 체르킨(Eduard Cherkin) 극동북극개발공사(KRDV) 대표는 인도 기업들이 이미 극동에 에너지, 천연자원, 다이아몬드 절삭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 러시아의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탄화수소의 인도 공급, 지질 탐사, 석유 및 기타 에너지자원의 생산 및 가공 등 에너지 분야가 전통적으로 양국 간 중요한 협력 분야였으며, 투자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있다고 피력하였음
- 아나스타샤 나바치코바(Anastasia Nabatchikova)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ANO API) 석유 가스 화학 분야 상무는 “그린 에너지”의 전환은 적어도 2040년까지 LNG 시장 발전에 이바

지할 것이라 언급하는 한편, 아무르 지역에 가스 플랜트(GPP)를 건설하고 있으며, 캄차카 지역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인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으로 2040년까지 인도의 LNG 수입은 4배 이상(인도 내 가스 수입의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9년 경제포럼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항-첸나이항의 해상항로 개발 협약 체결,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 및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도 기업에 대해 10억 달러 융자 제공 등 러시아-인도 관계가 가속화되고 있음
- 타룬 카푸르(Tarun Kapoor)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차관은 인도 기업이 러시아 국영 및 민간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에너지 부분의 상호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어 인도 측은 러시아 사할린, 야쿠티야, 캄차카, 하바로브스크, 아무르 지역과의 가스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인도지역의 지질 탐사, 광물 채취 프로젝트 등에 러시아 기업의 참여 및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도 제안하였음

■ 인도의 극동 러시아에서 경제협력 강화 추진은 중·러의 밀월 관계 견제용^{b)}

- 최근 중-러의 밀월관계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지난주 인도 외무부 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무부 장관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했으며, 주요 방문 목적이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 최근 극동지역에 대한 인도의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며, 인도 정책입안자들은 러시아가 서방 측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교수에 따르면, 인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대안 가능한 파트너십을 제공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이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중국을 바라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그림. 인도-러시아 해상로 계획

자료: Nikkei Asia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카자흐스탄, 2025년까지 농업 부문에 99억 달러 투자

■ 카자흐스탄, 2025년까지 농업 부문에 4조 텡게(99억 7천만 달러) 투자유치^{a)}

참고자료

a) <https://www.eastrussia.ru/news/tri-regiona-dfo-zainteresovany-v-indiyskikh-investitsiyakh-v-gazovye-proekty/> (2021.3.3. 검색)

b)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ia-seeks-economic-energy-in-Russian-Far-East-countering-China> (2021.3.11. 검색)

- 3월 2일 개최된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에서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는 농업 부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사파칸 오마로브(Saparkhan Omarov) 농업부 장관은 250개의 수입 대체 프로젝트를 포함한 380여 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매년 최대 80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사파칸 오마로프 카자흐스탄 농업부 총리



자료: primeminister.kz

■ 자급률 80%, 100만 농업종사자의 소득 향상, 노동 생산성 2.5배 증가 목표^{a)}

- 사파칸 오마로브 농업부 장관은 우선 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식품으로 최대 80%까지 국내 시장의 자급 자족 및 100만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2.5배 높이는 한편, 가공품 수출량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가금류(poultry), 소시지, 치즈 및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사과, 설탕 및 생선 등의 수입량은 감소시켜 나간다는 입장임
- 각 분야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특정 투자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며, 그중에는 총 19만 1,000톤에 달하는 11개의 가금류 농장과 14개의 새로운 소시지 및 어류 생산 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 알마티(Almaty), 잠불(Zhambyl) 및 투르키스탄(Turkestan) 지역과 쉴켄트(Shymkent) 시

는 사과 생산량을 총 6,600 헥타르로 늘릴 계획임

■ 카작은 2020년에도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공장과 낙농 농장 등 시설 건설^{a)}

-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 부문 발전을 위해 2020년에 총 9만 4,000톤 규모의 가금류 농장 8개를 설치하였으며,
- 설탕과 유제품 생산을 확대할 목적으로 연간 총 1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는 17개의 산업 시설을 포함한 48개의 낙농 농장을 설립함

■ 지난해 카작 농업 생산량은 유라시아 경제국가 중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a)}

- 카자흐스탄의 2020년 한 해 동안의 농업 생산량은 5.6% 증가한 6조 3,000억 텡게(약 150억 달러)에 달했음
- 2020년 농업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작물 생산량이 7.8%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이 같은 수치는 아르메니아(Armenia), 벨라루시(Belarus), 키르기스스탄(Kyrgyzstan)과 러시아(Russia)와 비교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중에서 가장 큰 증가량이었음

그림. 카자흐스탄 농업 현장



자료: <https://astanatimes.com/2021/03/kazakhstan-seeks-to-attract-9-5-billion-in-agriculture-investment-by-2025/>

■ 이번 투자 유치계획은 국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의 식량 독립 보장

- 사파칸 오마로프 농업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카자흐스탄의 투자 우선 순위는 수

입 대체이다. 국가가 계획한 작업은 2024년까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의 식량 독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음

- 이번 계획은 곡물과 유지 종자, 과일채소, 설탕, 육류 및 우유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7개의 대규모 시스템을 조성하는데 있음

■ 정부는 농업 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해 주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 단순화

- 카자흐스탄은 2020년에 농촌 주민들에게 총 432억 텡게(1억 340만 달러)에 달하는 1만 1,000개 이상의 소액 대출을 해 주었음
- 앞으로 5년 동안 카작 정부는 2,500억 텡게(5억 9,383만 달러)에 달하는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 또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및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대출을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 그리고 올해 카작 정부는 국가적인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반대채권(counter obligation)^{d)}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astanatimes.com/2021/03/kazakhstan-seeks-to-attract-9-5-billion-in-agriculture-investment-by-2025/>(2021. 3. 4. 검색)
- b) primeminister.kz(2021. 3. 4. 검색)
- c) https://www.inform.kz/en/kazakhstan-to-boost-poultry-farming_a3625432(2021. 3. 4. 검색)
- d) A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항하여 B가 A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임. 자동채권이라고 불리는데, 상계를 위해 채무자가 내놓은 채권을 의미함



주요 통계



표. 2021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0.38 (+5.5%)	6.35 (-4.9)	16.73	+1.3%
북극해	1.99 (-17.8%)	5.6(-10.1%)	7.59	-12.2%
발트해	9.44(+8.4%)	11.61(-13.8%)	21.05	-5.1%
아조프-흑해	8.0 (+7.7%)	9.33(-29.3%)	17.33	-15.9%
카스피해	0.24 (-21.5%)	0.41 (-3.0%)	0.65	-10.7%
합계	30,05(+4.7%)	33.3(-16.7%)	63.35	-7.8%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08733/\(2021.3.9. 검색\)](https://portnews.ru/news/308733/(2021.3.9. 검색))

표.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92,385.8	63,662.4	3,476.1	1,172.1	395,861.9	64,834.5
광물 제품	1,024,552.3	35,285.6	29,442.0	37,716.1	1,053,994.2	73,001.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830,332.8	34,745.2	679.2	0	831,012.1	34,746.3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299.1	64,780.6	601.4	516.5	4,900.5	65,297.1
가죽원료. 모피 제품	1.3	1,799.6	1.0	3.5	2.3	1,803.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0,912.2	8,759.6	491.2	164.8	81,403.3	8,924.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06.1	29,685.9	10.2	226.6	216.3	29,912.5
금속 및 금속 제품	42,978.9	65,365.4	302.4	4,358.4	43,281.4	69,723.8
기계류	124,701.3	521,670.0	462.3	1,548.2	125,163.7	523,218.2
기타	664,321.9	37,508.1	18,703.4	612.9	683,025.3	38,121.0
합계	3,164,691.8	863,262.5	54,169.2	46,320.2	3,218,861.0	909,582.6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y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2.25. 검색)

표.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2	6.8	—	—	—	—	—	—	1.9	6.8	—	—
냉동어	212,985	281,620.3	357	1,782.2	654	529.5	—	—	213,638.1	282,149.8	597	1,938.0
연어류	25,795	86,331.1	—	—	0	0.0	—	—	25,795.2	86,331.1	—	—
넙치	521	2,713.8	—	—	—	—	—	—	521.2	2,713.8	—	—
가자미	127	108.5	—	—	—	—	—	—	127.0	108.5	—	—
가자미류	2,052	1,448.3	—	—	—	—	—	—	2,051.7	1,448.3	—	—
청어	70,866	39,844.9	—	—	117	64.6	—	—	70,983.3	39,909.5	—	—
대구	11,268	29,599.6	—	—	—	—	—	—	11,268.2	29,599.6	—	—
명태	66,223	71,432.1	—	—	533	460.9	—	—	66,756.8	71,893.0	—	—
농어	30	83.4	—	—	—	—	—	—	30.2	83.4	—	—
간, 곤이 (어란)	1,280	195,814.6	—	—	—	—	—	—	1,280.1	30,731.5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047	1,623.8	—	—	—	—	—	—	1,046.6	1,623.8	—	—
생선 필렛, 어육	3,965	11,140.3	250	986.0	26	66.7	—	—	3,991.3	11,207.0	250	986.0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8	211.1	178	989.3	0	0.0	—	—	118.1	211.1	178	989.3

갑각류	13,192	316,533.4	106	608.3	—	0.0	—	—	13,191.4	316,533.4	106	608.3
계류	11,632	303,068.7	—	—	—	0.0	—	—	11,632.5	303,068.7	—	—
조개류	9,709	29,454.2	—	—	62	69.5	—	—	9,770.9	29,523.7	—	—
가리비	541	1,528.0	—	—	—	—	—	—	541.1	1,528.0	—	—
오징어류, 문어류	8,283	21,942.6	142	551.2	62	69.5	—	—	8,344.0	22,012.1	142	551.2
수산 무척추 동물	2,687	7,086.3	—	—	0	36.6	—	—	2,687.0	7,122.9	—	—
해삼류	697	999.2	—	—	0	36.6	—	—	697.5	1,035.8	—	—
성게류	1,872	6,026.6	—	—	—	—	—	—	1,872.4	6,026.6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2.10. 검색)